

도박중독자의 문제도박 수준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기본심리욕구의 다중매개효과

김 재 환¹⁾ 장 성 호[†] 신 성 만²⁾

본 연구는 도박중독자의 문제도박 수준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자율감, 소속감, 유능감)의 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하여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기본심리욕구와 스트레스가 도박중독자에게는 문제도박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박중독 유병률을 구하는 기준에 따라 도박중독 수준에 해당하는 성인 206명을 선별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도박중독자의 성별과 도박 부채 금액을 통제한 후 문제도박 수준과 기본심리욕구가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제도박 수준과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은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도박 수준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의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제도박 수준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율감, 소속감, 유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심리욕구와 스트레스가 도박중독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문제도박 수준이 심각해짐에 따른 폐해들로 인한 결과일 수 있음을 제시하며 기본심리욕구 결핍(도박이용자)→스트레스(도박이용자)→문제도박→도박중독(도박중독자)→문제도박→기본심리욕구 결핍(도박중독자)→스트레스(도박중독자)라는 심리적 과정의 가능성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여 문제도박 상담에 임상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도박중독자, 문제도박, 스트레스, 기본심리욕구, 다중매개

1) 부산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 교신저자 : 장성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북센터, 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E-mail: esprit@handong.edu

2)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

도박중독은 국내에서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도박중독은 ‘도박장애(gambling disorder)’라는 명칭으로 세계 보건 기구(WHO)가 정한 국제 질병 분류 기준(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에 등재되어 있는 질병이며, 개인, 가족, 친구 또는 직장을 비롯한 조직, 지역사회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재정적, 또는 법적 문제나 피해를 초래해서 개인이 이를 조절하려 하지만 통제력을 잃고 도박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뜻한다(WHO, 2019). 이에 대한민국에서는 2008년부터 2년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척도를 기준으로 ‘도박중독 유병률’을 발표하고 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1). CPGI는 도박을 하는 사람의 문제도박 수준, 즉 도박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도 수준에 따라 사람들의 도박행동 수준을 ‘비문제’, ‘저위험’, ‘중위험’, ‘문제성’으로 분류한다. 이때 도박중독 유병률은 CPGI에서 분류되는 문제도박의 수준 중 ‘중위험’과 ‘문제성’을 합한 비율로 산출하는데 ‘중위험’ 수준은 도박에 사용하는 시간과 금액이 늘고 도박행동 및 결과를 숨기며 개인의 통제력을 상실해 일상생활과 역할기능에 피해를 줄 정도로 도박에 몰입한 상태를 의미하고, ‘문제성’ 수준은 도박행동으로 일상생활과 역할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전국 성인 14,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사행산업 이용실태를 보면, 일상생활에서 유희 및 오락적 수준으로 건강하게 도박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비문제’와 ‘저위험’ 수준은 각각 87.7%, 6.9%로 나타났고 ‘중위험’과 ‘문제성’ 수준은 각각 4.3%, 1.1%로 나타났다(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2021). 이를 통해 산출한 2020년 국내 도박중독 유병률은 5.3%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본오차(± 0.4)를 고려할 때 2018년의 5.3%와 통계학적으로 동일한 수준이나 같은 척도로 유병률을 측정된 노르웨이(4.4%), 호주(3.5%), 캐나다(3.3%), 영국(2.5%), 미국(1.5%)을 훨씬 웃도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9).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전 국민 도박중독 유병자 규모를 추정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성인 중 약 222만 명이 도박중독 유병자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도박중독 유병률을 측정하는 기준인 CPGI를 통해 도박자의 문제도박 수준에 따라 중위험과 문제성 수준 도박자를 도박중독자로 명명하고자 한다.

도박중독은 다른 어떤 중독문제보다도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킨다. 구체적으로 도박중독자가 경험하는 문제도박의 결과들에 대한 질적연구들을 살펴보면(이경희, 도승이, 김종남, 이순목, 2011; 이근무, 강선경, 탁평근, 2015), 경제 및 사회적으로는 도박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을 잃고 부채가 생기며 직장생활의 기능 저하와 중단과 같은 재정 및 사회적 문제를 경험한다. 관계적으로는 도박중독자의 문제도박으로 인해 가족과의 갈등과 불화, 직장 내에서의 동료들과의 갈등, 대인관계의 회피와 거리감, 그리고 대인관계의 제한과 단절로 인해 의지할 사람을 상실하여 대인관계 고립감을 경험한다. 신체적으로는 생활 리듬의 변화와 수면박탈 등과 같은 건강 악화가 나타난다. 개인 내적으로는 도박행동을 중단하고자 노력하지만 지속적으로 실패함에 따라 자신에 대한 불신과 실망, 무기력과 자포자기, 불안과 우울, 외로움, 창피와

후회스러움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 도박중독자는 단순 도박자들과 비교했을 때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선중, 김교현, 성한기, 이민규, 강성군, 2007; Poirier-Arbour et al., 2014). 또한 도박중독자는 문제도박 수준이 심각해짐에 따라 자신에 대한 불신과 실망, 자신에 대한 효능감 및 유능감의 상실, 부채에 끌려다니는 삶, 부정적 정서의 증가, 관계의 단절 및 사회적 고립, 알코올 및 약물 소비 등이 발생하고 이는 개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심할 경우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이경희 등, 2011; Gill, Ahmadi, & Pridmore, 2014).

도박중독자의 계속되는 문제도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도박행동을 중단하는 것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유발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도박중독자의 재정 및 사회적 문제는 다른 중독자들에 비해 도박중독자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는 도박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Atonetti & Horn, 2001; Oei & Gordon, 2008; Poirier-Arbour et al., 2014; Sacco, Cunningham-Williams, Ostmann, & Spitznagel Jr., 2008). 또한 도박중독은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은 물질중독보다 더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경험하게 하며 이로 인한 재발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양정남, 최은정, 김화선, 2011; Echeburua, Fernandez-Montalvo, & Baez, 2001; Hodgins & El-Guebaly, 2004; Poirier-Arbour et al., 2014). 이처럼 도박으로 인한 문제는 개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고 개인은 이를 대처하기 위해 다시 도박을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권선중 등, 2007; 김예나, 권선중, 2020; 이경희 등, 2011). 이러한 측면

들을 종합해보면, 도박중독자의 문제도박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더 심해지고 이는 도박행동을 중단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도박이용자가 도박중독자로 발전하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도박중독자의 지속적인 문제도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경험과 그들의 도박행동을 유지, 악화, 또는 재발시키는 이유 및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강연정,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박중독자에 대한 향후 연구 및 임상적 개입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도박중독자의 문제도박 수준이 그들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도박행동의 반복이라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자 한다.

도박중독과 스트레스의 관련성은 매우 높으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들의 관계는 일방향의 단순 인과성을 넘어 상호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선행연구들에서는 스트레스를 도박중독의 원인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가 유의미하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김영경, 2012; 남전아, 채규만, 2012; 장정임, 윤인노, 김성봉, 2014; Turner, Zangeneh, & Littman-Sharp, 2006). 그러나 신영철(2005)은 스트레스가 도박중독의 발생 원인이기도 하지만 도박중독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김영훈, 최삼욱, 신영철(2007)은 도박중독자가 스트레스 상황이나 자신의 문제들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추정하며 강렬한 수준의 감정을 동반하여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도박중독 집단 내에서 도박중독이 더 심각할수록

다양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며 문제를 부정하고 회피하는 억제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박중독으로 인해 문제도박 수준이 심해질수록 도박중독자는 점차 경직된 대처 행동 패턴을 보이고 제한된 안목으로 생활을 영위하며 자신을 점차 고립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영훈, 이영호, 2006).

스트레스가 도박의 시작이자, 단순한 도박 이용을 도박중독으로 발전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도박중독자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는 문제도박의 결과일 수 있으며 도박중독과 스트레스의 관계는 일방향적인 인과적 관계이기보다는 원인과 결과가 순환하는 메커니즘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Steinberga, Tremblaya, Zacka, Bustoa, & Zawertailoa, 2011). 이러한 맥락에서 도박중독자는 통제력을 상실한 도박행동으로 인해 높아진 스트레스가 도박중독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이는 재발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므로 도박중독 상담에서 도박중독자의 회복과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대처가 필수적이다(신영철, 2005; Steinberga et al., 2011). 따라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가시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도박중독으로 인해 야기되는 스트레스에서 심리적 원인과 스트레스 대처 역량을 조력하기 위한 심리적 변인을 탐색하는 것은 임상적 개입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자의 문제도박과 그로 인해 그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과 역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도박중독자가 문제도박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고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변화와 회복의 중요한 시작

이다. Ryan과 Deci(2000, 2017)의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을 기반으로 한 기본심리욕구(자율감, 소속감, 유능감)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 대처 능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심리적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Ntoumanis, Edmunds, & Duda, 2009; Weinstein & Ryan, 2011). 자율감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 소속감은 지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 유능감은 유능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을 의미한다. 자기결정이론(Ryan & Deci, 2000, 2017)에 따르면, 기본심리욕구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웰빙과 성장을 지향하며 삶에 대한 내재적 에너지, 즉 생명력(vitality)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개인에게는 자율감, 소속감, 유능감이라는 선천적인 기본심리욕구가 필요하므로 최적의 심리적 발달, 수행, 그리고 웰빙을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애를 쓰고 이것이 충족될 경우 자기결정감이 증가되며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심리적 기능들의 향상과 연관된다.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수록 집중감(feel focused)과 생명력이 증가하였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생명력의 증가는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 인지적 유연성, 인내, 삶에 대한 동기, 치료동기 증가, 심리적 고통의 감소로 나타났다(Deci & Ryan, 1985; Ryan & Deci, 2017). 또한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수록 체중 조절(Ng, Ntoumanis, Thøgersen-Ntoumani, Stott, & Hindle, 2013; Williams, Freedman, & Deci, 1998), 니코틴중독(Curry, Wagner, & Grothaus, 1990), 알코올중독(Ryan, Plant, & O'Malley, 1995), SNS중독 경향

성(박지수, 서영석, 2018), 도박행동 심각도(김서희, 신성만, 2021) 등 개인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박중독자가 문제도박으로 인해 경험하는 다양한 외적이고 환경적 문제들은 오히려 그들의 회복과 스트레스 대처에 중요한 기본심리욕구를 결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되어 아직까지 경험적 선행연구들이 부족하지만, 도박중독자의 문제도박으로 발생하는 피해들을 현상학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피해들은 도박중독자의 기본심리욕구 결핍을 야기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도박중독자는 자신에 대한 효능감 및 유능감 상실, 관계의 단절 및 사회적 고립, 자신에 대한 불신과 실망, 재정적 압박, 지속적인 재발과 실패, 좌절의 연속, 직장에서의 무능 등을 경험하며 기본심리욕구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은 자율감, 소속감, 유능감의 손실과 결핍을 야기할 수 있다(이경희 등, 2011; 이근무 등, 2015).

이러한 기본심리욕구는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다. Ntoumanis와 동료들(2009)은 대처에 관한 인지-동기 관계 이론(Cognitive-motivational-relational theory of coping)(Lazarus & Folkman, 1984)을 자기결정이론의 측면에서 설명하면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스트레스를 긍정적이고 적절하게 대처(coping)하는 역량에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선행된다고 주장했다. Weinstein과 Ryan(2012)은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stressors)로 인한 심리, 건강의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거나 임상적으로 개입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적 대처는 도박중독 회복의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고(김정연, 2005), Kushnir, Godinho, Hodgins, Hendershot과 Cunningham(2016)의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회복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도박중독자의 기본심리욕구 충족 여부는 그들이 도박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동기인 변화 동기에 중요한 선행적 요인이며 도박을 끊고자 하는 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자가 자신의 도박행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행하는 문제들은 기본심리욕구를 좌절시키는 내, 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도박중독자의 문제도박 수준이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좌절되고 이로 인해 변화와 생명력을 상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기본심리욕구의 결핍으로 인해 도박중독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과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문제도박행동이 유지 혹은 악화되고 심지어 도박을 끊었다가도 재발을 경험할 수 있다. 즉 기본심리욕구 결핍은 도박중독자의 문제도박행동으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하여 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도박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직접적으로 도박중독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본심리욕구의 결핍을 야기함으로써 개인은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와 회복이 어려워지고 변화의 동력을 잃게 되어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박중독자의 문제도박 수준이 그들의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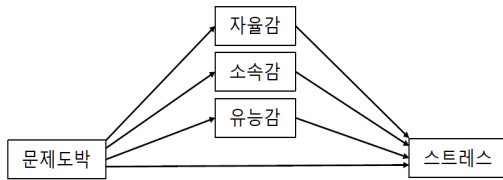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에서 가정한 병렬적 다중매개모형

것은 도박중독자의 도박행동의 유지 또는 회복이라는 심리적 매커니즘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도박중독자의 문제도박 수준이 그들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도박중독자의 문제도박 수준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이론이 주장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기본심리욕구인 자율감, 소속감, 유능감을 병렬적 다중매개로 하여 문제도박 수준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도박중독 유병률을 측정하는 기준인 한국판 캐나다 문제도박 척도를 사용하여 문제도박 수준을 측정하고, 기본심리욕구의 총족 수준을 측정하는 한국판 기본심리욕구 균형 척도를 사용하여 기본심리욕구의 세 하위요인을 측정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심리적 반응뿐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자기신뢰, 일반 건강 수준을 포함하여 국내외에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 단축형을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측정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문제 1. 도박중독자의 문제도박 수준은 기본심리욕구와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문제 2. 도박중독자의 문제도박 수준은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도박중독 회복 관련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편의 표집을 통하여 전국의 성인 776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 752명, 오프라인 24명의 응답이 모였으나 본 연구는 도박중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이므로 국내외에서 도박중독 유병률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기준인 ‘최근 1년 이내 도박 경험자 중 CPGI 3점 이상’을 활용하여 최근 1년 이내 도박 미경험 및 CPGI 3점 미만 523명, 불성실 응답(ex, 이 문항은 무분별한 응답을 가려내기 위한 문항이므로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성실한 답변으로 간주하겠습니다.)(박원우 등, 2020) 47명을 제외한 총 206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120명(58.3%), 여자 86명(41.7%), 연령대는 20대 87명(42.2%), 30대 87명(42.2%), 40대 23명(11.2%), 50대 6명(2.9%), 60대 3명(1.5%), 도박 종류에 대한 복수 응답은 복권 104명(50.5%), 주식 81명(39.3%), 스포츠도박 61명(29.6%),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50명(24.3%), 화투 32명(15.5%), 카드 27명(13.1%), 사다리게임 26명(12.6%), 카지노 11명(5.3%), 경마 9명(4.4%), 경륜 4명(1.9%), 기타 3명(1.5%), 소싸움 2명

(1.0%), 도박 유형은 온라인 도박 171명(83.0%), 오프라인 도박 35명(17.0%), 도박 부채 금액은 평균 356만원, 표준편차 1,371만원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한국판 캐나다 문제 도박 척도

문제도박에 관한 질문지는 Ferris와 Wynne(2001)이 개발한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를 김아영, 차정은, 권선중, 이순목(2011)이 번안 및 타당화한 버전인 K-CPG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최근 1년 이내 도박 경험자를 대상으로 문제도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단일요인, 9문항(ex, 귀하는 잃으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문항은 ‘아니다(0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3점)’의 4점 Likert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총합 점수에 따라 문제도박 수준을 구분하는데 0점은 ‘비문제 도박자’, 1~2점은 ‘저위험 도박자’, 3~7점은 ‘중위험 도박자’, 8점 이상은 ‘문제성 도박자’로 분류한다. 김아영 등(201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4,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한국판 기본심리욕구 균형 척도

기본심리욕구에 관한 질문지는 Sheldon과 Hilpert(2012)가 개발한 BMPN(Balanced Measure of Psychological Needs Scale)을 송용수(2019)가 번안 및 타당화한 버전인 K-BMPN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3개의 하위요인(자율감, 유능감, 소속감), 15문항(ex, 나를 돌보아주는 사람들과 내가 돌보는 사람들에게 유대감을 느꼈다)으로 구성

되어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완전 그렇다(5점)’의 5점 Likert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가 충족, 낮으면 결핍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송용수(2019)의 연구에서 자율감, 유능감, 소속감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75, .70, .61, 본 연구에서는 .69, .71, .66로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 단축형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지는 Goldberg(1979)가 개발한 GHQ(General Health Questionnaire)를 장세진(2000)이 수정 및 축약한 버전인 SF-PWI(Short Form Psychosocial Well-being Index)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4개의 하위요인(사회적 역할수행 및 자기신뢰도, 우울, 수면장애 및 불안, 일반건강 및 생명력), 18문항(ex, 현재 매우 편안하며 건강하다고 느낀다)으로 구성되어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항상 그렇다(3점)’의 4점 Likert로 구성되어있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장세진(200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9, 본 연구에서는 .79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도박중독자의 문제도박 수준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3가지 하위요인(자율감, 유능감,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5.0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문제도박, 스트레스, 기본심리욕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고 정규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스트레스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량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1단계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문제도박의 수준 및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과 도박 부채 금액의 영향을 통제하였으며(김영훈 등, 2007; 김영혜, 김영훈, 2009; 박초롱, 2021) 2단계에서는 독립 변인으로 문제도박 수준을, 3단계에서는 독립 변인으로 문제도박 수준과 기본심리욕구 3가지 하위요인(자율감, 소속감, 유능감)을 투입하여 스트레스에 미치는 설명량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문제도박과 스트레스 사이에서 성별과 도박 부채 금액을 통제할 때 기본심리욕구 3가지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4번 분석을 사용하여 병렬식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5,000번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문제도박 수준, 기본심리욕구(자율감, 소속감, 유능감), 스트레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은 각각 .042~1.951, .078~3.457을 나타내어 각각 절댓값 2, 7보다 작아 정규성이 가정됨을 확인하였다(DeCarlo, 1997).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문제도박은 스트레스($r=.43, p<.001$)와는 정적 상관을, 자율감($r=-.16, p<.05$), 소속감($r=-.22, p<.01$), 유능감($r=-.16, p<.05$)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율감은 소속감($r=.64, p<.001$), 유능감($r=.71, p<.001$)과는 정적 상관을, 스트레스($r=-.67, p<.001$)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소속감은 유능감($r=.63, p<.001$)과는 정적 상관을, 스트레스($r=-.67, p<.001$)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유능감은 스트레스($r=-.71, p<.001$)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 및 기술통계

변인	1	2	3	4	5
1 문제도박	1				
2 기본 자율감	-.17*	1			
3 심리 소속감	-.22**	.64***	1		
4 욕구 유능감	-.16*	.71***	.63***	1	
5 스트레스	.43***	-.67***	-.67***	-.71***	1
M	4.22	16.94	18.34	16.89	20.52
SD	5.85	3.62	4.05	3.82	10.82
왜도	1.95	-.04	-.32	-.25	.22
첨도	3.46	.08	-.17	.40	-.52

주. * $p<.05$, ** $p<.01$, *** $p<.001$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도박 수준, 기본심리욕구(자율감, 소속감, 유능감)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인들이 회귀분석의 가정들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VIF를 통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최소 1.014, 최대 2.301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이기중, 2006). 또한 자기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Dubin-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1.981로 2에 가까운 값을 가져 자기상관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은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 1, 2단계에서는 성별과 도박 부채 금액의 영향력을 고려하고도 문제도박이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하였다. 1단계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성별과 도박 부채 금액의 영향을 통제하였고 성별과 도박 부채 금액은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F=1.556, p>.05$). 2단계에서는 성별과 도박 부채 금액에 문제도박을 추가로 투입하였고 문제도박은 스트레스를 18.6% 추가로 설명하였다($F=16.902, p<.001$). 3단계에서는 성별과 도박 부채 금액, 문제도박에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자율감, 소속감, 유능감)을 추가로 투입하였고 기본심리욕구 3가지 하위요인은 스트레스를 49.0% 추가로 설명하였다($F=74.241, p<.001$).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다중매개효과 검증

도박중독자의 문제도박이 성별과 도박 부채 금액을 통제한 채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을 매개하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병렬식 다중매개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문제도박은 자율감($B=-.094, p<.05$), 소속감($B=-.154, p<.01$), 유능감($B=-.115, p<.05$), 스트레스($B=-.519, p<$

표 2. 스트레스에 대한 성별, 도박 부채 금액, 문제도박, 기본심리욕구 3가지 하위요인의 설명력: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독립변인	B	β	t	R ²	ΔR^2	F	
1	성별	1.381	.067	.959	.015	.015	1.556	
	도박 부채 금액	0.001	.111	1.584				
2	성별	1.335	.065	1.026	.201	.186	16.902***	
	도박 부채 금액	-.001	-.127	-1.761				
	문제도박	.794	.492***	6.847				
3	성별	.506	.025	.618	.691	.490	74.241***	
	도박 부채 금액	.000	-.079	-1.731				
	문제도박	.519	.322***	6.960				
	기본	자율감	-.648	-.224***				-3.743
	심리	소속감	-.665	-.247***				-4.486
	욕구	유능감	-.968	-.344***				-5.827

주. * $p<.05$, ** $p<.01$, *** $p<.001$

.001)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들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우 자율감($B=-.648, p<.001$), 소속감($B=-.665, p<.001$), 유능감($B=-.968, p<.001$)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3, 그림 2와 같다.

문제도박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첫째, 문제도박이 자율감을 거쳐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 구간이 [.016, .113]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자율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제도박이 소속감을 거쳐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 구간이 [.042, .183]으로 0을 포함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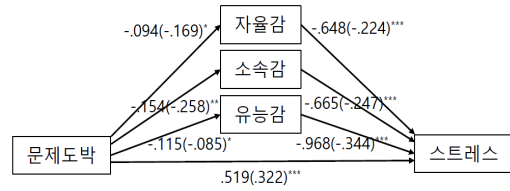


그림 2. 문제도박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의 병렬식 다중매개모형

아 소속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제도박이 유능감을 거쳐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이 [.039, .200]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3. 문제도박,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 스트레스 간의 경로계수

관계변인		B	β	S.E.	t	LLCI	ULCI
문제도박	→ 자율감	-.094	-.169	.044	-2.13*	-.181	-.007
문제도박	→ 소속감	-.154	-.258	.047	-3.29**	-.246	-.062
문제도박	→ 유능감	-.115	-.085	.045	-2.54*	-.204	-.026
문제도박	→ 스트레스	.519	.322	.075	6.960***	.372	.666
자율감	→ 스트레스	-.648	-.224	.173	-3.743***	-.989	-.306
소속감	→ 스트레스	-.665	-.247	.148	-4.486***	-.958	-.373
유능감	→ 스트레스	-.968	-.344	.166	-5.827***	-1.295	-.640

주. * $p<.05$, ** $p<.01$, *** $p<.001$

표 4. 문제도박과 스트레스에 대한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의 간접효과

경로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		
				B	S.E.	LLCI	ULCI	
문제도박	→	자율감	→	스트레스	.061	.025	.016	.113
문제도박	→	소속감	→	스트레스	.103	.036	.042	.183
문제도박	→	유능감	→	스트레스	.111	.041	.039	.200

논 의

본 연구는 도박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도박중독자를 대상으로 문제도박 수준에 따른 심리적 경험과 그들의 도박행동을 유지, 악화, 재발시키는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부족한 상황에서(강연정, 2010) 도박중독자의 문제도박 수준이 기본심리욕구의 3가지 하위요인인 자율감, 소속감, 유능감을 매개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도박중독 유병률을 측정하는 기준인 CPGI 척도의 총합 점수 3점 이상(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1)을 기준으로 도박중독자 206명을 선별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박중독자의 문제도박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의 선행연구가 제안하고 있듯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제도박 수준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도박중독자의 문제도박 수준이 심각해질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가 도박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하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지만(양정남 등, 2011; Echeburua et al., 2001; Hodgins & El-Guebaly, 2004), 스트레스가 도박중독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연구(신영철, 2005), 도박중독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김영훈 등, 2007), 정기적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Poirier-Arbour et al., 2014), 도박중독 수준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Mills,

Anthony, & Nower, 202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도박중독과 스트레스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두 변인의 인과성은 일방적이 아니라 순환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Steinberga et al., 2011).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도박중독자의 문제도박 수준과 스트레스와의 인과성에 대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단일 시점의 연구가 아닌 종단적 연구를 통해 문제도박 수준과 스트레스와의 상호관계 및 인과성, 문제도박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문제도박 수준과 스트레스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도박중독자의 기본심리욕구 결핍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개인의 문제와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능력에 중요하다는 연구(Ntoumanis et al., 2009),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문제들을 감소시킨다는 연구(Weinstein & Ryan, 2011), 기본심리욕구 결핍이 문제도박 수준을 매개하여 심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Mills et al., 2020), 스트레스와 기본심리욕구를 기준으로 도박중독자를 분류했을 때 기본심리욕구가 결핍되어있고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하나의 군집으로 묶이는 연구(장성호, 신성만, 2021)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도박중독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정 및 법률, 대인관계와 같은 외적 요인뿐 아니라, 내적 요인인 기본심리욕구 결핍 자체도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도박중독자의 기본심리욕구 결핍 등의 내적 요인에 대한 개입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도박중독자의 문제도박 수준과 스트

레스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감, 소속감, 유능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제도박 수준이 심각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도박중독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도박중독자의 기본심리욕구를 감소시킴으로써 인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와 유사하게 기본심리욕구 결핍이 도박중독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본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결과 및 해석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Chantal, Vallerand, & Vallieres, 1995; Mills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단순 도박이용자와 달리 도박중독자의 경우 문제도박으로 인해 기본심리욕구 결핍이 가중될 수 있고 이러한 점들이 다시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 및 회복의 동력을 상실함으로써 재발과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추후 연구에서는 도박중독자의 기본심리욕구 결핍과 문제도박 수준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떠한 인과적 관계를 가지는지 규명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도박중독의 예방적 차원에서 기본심리욕구 혹은 스트레스가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이미 도박에 중독된 도박중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도박중독자의 문제도박 수준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도박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사회적, 관계적 문제들을 적절히 대처하고 회복과 재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임상적 개입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기본심리욕구가 가지는 역할

에 대한 탐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도박중독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기본심리욕구 결핍, 스트레스가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밝힌 도박중독의 발생 원인일 뿐만 아니라 문제도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심리욕구, 스트레스, 문제도박의 관계가 기본심리욕구 결핍(도박이용자)→스트레스(도박이용자)→문제도박→도박중독(도박중독자)→문제도박→기본심리욕구 결핍(도박중독자)→스트레스(도박중독자)라는 심리적 과정의 가능성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도박중독 상담에 있어서 임상적인 함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도박중독자의 상담에 있어서 도박중독으로 파생된 문제들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개입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전영민, 2018). 하지만 본 연구 결과를 비추어 볼 때 기존의 도박중독에 관한 심리상담에 있어서 재정 및 법률 교육,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비합리적 신념뿐 아니라 도박중독자의 심리적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심리상담적 개입의 필요성을 고려해 볼 있다. 심리적 욕구의 충족은 도박중독자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도박중독에서의 변화 동기(장성호, 신성만, 2021) 및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Ntoumanis et al., 2009; Weinstein & Ryan, 2011)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도박중독자가 도박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충족하고자 하는 심리적 목표일 수 있다. 따라서 도박중독 상담에 있어서 심리상담가들은 도박중독으로 두드러진 심리·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도박중독자

의 기본심리욕구에 대해서 심도 있는 탐색과 개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도박중독자의 문제도박 수준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단일시점 횡단적 연구라는 점에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점을 활용한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해볼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도박중독자의 기본심리욕구, 스트레스, 문제도박의 순환적 인과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을 도박중독자라고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박중독자를 선별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도박중독 유행률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CPGI 3점을 활용하고 4점 Likert(0~4점)인 CPGI에 대해 한 문항이라도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도박중독자로 선별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응답자에게 특정 답변을 선택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인 지시적 조작점점 문항(박원우 등, 2020)을 통해 불성실 가능성을 낮추었으나 본 설문지의 응답자들이 ICD의 도박장애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도박중독자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주도박의 종류에 따라 도박행동과 도박문제가 다르다는 선행연구(장훈, 윤상연, 허태균, 2010)가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도박중독 진단을 받은 임상군, 각각의 주도박에 따라 본 연구 결과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도박중독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에 있어 성별과 도박 부채 금액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나 도박중독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통제 변인들을 투입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도박중독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로 통제된 후 문제도박과 스트레스, 기본심리욕구의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선중, 김교현, 성한기, 이민규, 강성군 (2007). 성인과 남자 청소년의 불법 인터넷 도박 문제와 위험 요인 그리고 예방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1), 1-19.
- 김서희, 신성만 (2021). 도박이용자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4), 585-607.
- 김아영, 차정은, 권선중, 이순목 (2011). CPGI의 한국판 제작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4), 1011-1038.
- 강연정 (2010).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 복음과 상담, 15, 39-75.
- 김영경 (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현재 도박행동과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175-195.
- 김영훈, 이영호 (2006). 병적 도박자의 단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3), 697-710.
- 김영훈, 최삼욱, 신영철 (2007). 병적 도박자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우울증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6(2), 171-178.
- 김예나, 권선중 (2020). 청소년 도박문제 발달

- 및 자발적 회복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1), 125-151.
- 김영혜, 김영훈 (2009). 초기부적응도식과 도박 심각도의 관계에서 금전 동기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967-980.
- 김정연 (2005). 병적 도박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전아, 채규만 (2012). 스트레스와 청소년 도박행동의 관계 충동성의 매개효과와 모애착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3), 643- 657.
- 박원우, 마성혁, 배수현, 지선영, 이유우, 김자영 (2020). 설문조사에서 불성실 응답의 탐지방법과 제거의 효과. 경영학연구, 49(2), 331-364.
- 박지수, 서영석 (2018).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기본 심리욕구 만족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4), 1239-1269.
- 박초롱 (2021). 한국 성인의 성별에 따른 흡연 유형과 우울,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상태.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38(2), 55-69.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9). 2018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1). 2020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종합보고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송용수 (2019). 기본심리욕구의 균형과 행동중독 간의 관계. 한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영철 (2005). 스트레스와 도박중독. 스트레스, 13(2), 73-76.
- 양정남, 최은정, 김화선 (2011) 일반성인의 문제성 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사회사업, 39, 185-213.
- 이경희, 도승이, 김종남, 이순목 (2011). 도박이용자의 도박중독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1), 189-213.
- 이근무, 강선경, 탁평곤 (2015). 단도박자들의 도박중독행위 재발경험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3(2), 5-31.
- 이기중 (2006).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 교육과학사.
- 장성호, 신성만 (2021). 생리적 스트레스, 기본 심리욕구 만족과 균형에 따른 성인 문제 도박자의 군집 및 군집 별 도박 변화동기의 차이. 상담학연구, 22(3), 61-78.
- 장세진 (2000). 건강통계자료 수집 및 측정의 표준화. 대한예방의학회편, 계축문화사, 144-181.
- 장정임, 윤인노, 김성봉 (2014).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도박중독과의 관계: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1(11), 101-123.
- 장훈, 윤상연, 허태균 (2010). 도박유형에 따른 도박행동과 도박문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3), 331-354.
- 전영민 (2018). 도박중독 변화동기척도 (SOCRAATES-G)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2), 447-474.
- Antonetti, E., & Horn, M. (2001). *Gambling the home away: A study of the impact of gambling on homelessness*. Melbourne: Hanover Welfare Services.
- Chantal, Y., Vallerand, R. J., & Vallieres, E. F. (1995). Motivation and gambling involvemen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5*(6), 755-763.

- Curry, S., Wagner, E. H., & Grothaus, L. C. (199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for smoking cess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3), 310-316.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eCarlo, L. T. (1997). On the meaning and use of kurtosis. *Psychological Methods, 2*(3), 292-307.
- Echeburua, E., Fernandez-Montalvo, J., & Baez, C. (2001). Predictors of therapeutic failure in slot-machine pathological gamblers following behavioral treatment. *Behavio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29*(3), 379-383.
- Ferris, J. A., & Wynne, H. J. (2001). *The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Ottawa, ON: Canadian Centre on Substance Abuse.
- Gill, D., Ahmadi, J., & Pridmore, S. (2014). Suicide and gambling on the public record. *Malaysian Journal of Psychiatry, 23*(1), 81-88.
- Goldberg, D. (1978). *Manual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Windsor, UK: Nelson.
- Hodgins, D. C., El-Guebaly, N. (2004).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reports of precipitant to relapse in pathological gambl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therapy, 72*(1): 72-80.
- Kushnir, V., Godinho, A., Hodgins, D. C., Hendershot, C. S., & Cunningham, J. A. (2016). Motivation to quit or reduce gambling: Associations between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transtheoretical model of change. *Journal of Addictive Diseases, 35*(1), 58-65.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Mills, D. J., Anthony, W. L., & Nower, L. (2020). General motivation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problem gambling: Applying the framework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ddiction Research & Theory, 29*(2), 175-182.
- Ng, J. Y. Y., Ntoumanis, N., Thøgersen-Ntoumani, C., Stott, K., & Hindle, L. (2013). Predicting psychological needs and well-being of individuals engaging in weight management: The role of important others. *Applied Psychology: Health and Well-Being, 5*(3), 291-310.
- Ntoumanis, N., Edmunds, J., & Duda, J. L. (2009). Understanding the coping process from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2), 249-260.
- Oei, T. P., & Gordon, L. M., (2008). Psychosocial factors related to gambling abstinence and relapse in members of gamblers anonymou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4*(1), 91-105.
- Poirier-Arbour, A., Trudel, G., Boyer, R., Harvey, P., & Goldfarb, M. R. (2014).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 severity in problem and pathological gamblers in couple relationship. *Journal of Gambling Studies, 30*(1), 173-185.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Ryan, R. M., & Deci, E. L. (2017). *Self-determination theory: Basic psychological needs*

- in motivation, development, and wellness*.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Ryan, R. M., Plant, R. W., & O'Malley, S. (1995). Initial motivations for alcohol treatment: Relations with patient characteristics, treatment involvement, and dropout. *Addictive Behaviors, 20*(3), 279-297.
- Sheldon, K. M., & Hilpert, J. C. (2012). The balanced measure of psychological needs (BMPN) scale: An alternative domain general measure of need satisfaction. *Motivation and Emotion, 36*(4), 439-451.
- Sacco, P., Cunningham-Williams, R. M., Ostmann, E., & Spitznagel Jr, E. L. (2008). The association between gambling pathology and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2*(13), 1122-1130.
- Steinberga, L., Tremblaya, A., Zacka, M., Busto, U. E., & Zawertailoa, L. A. (2011). Effects of stress and alcohol cues in men with and without problem gambling and alcohol use disorder.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19*(1-2), 46-55.
- Turner, N. E., Zangeneh, M., & Littman-Sharp, N. (2006). The experience of gambling and its role in problem gambling. *International Gambling Studies, 6*(2), 237-266.
- Weinstein, N., & Ryan, R. M. (2011).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to understanding stress incursion and responses. *Stress and Health, 27*(1), 4-17.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11th ed.).
- Williams, G. C., Freedman, Z. R., & Deci, E. L. (1998). Supporting autonomy to motivate patients with diabetes for glucose control. *Diabetes Care, 21*(10), 1644-1651.

논문 투고일 : 2021. 12. 16

1 차 심사일 : 2021. 12. 28

게재 확정일 : 2022. 01. 25

Relationship between Levels of Problem Gambling and Stress among Gambling Addicts: The Multiple Mediation Effects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Jae-Hwan Kim¹⁾

Sung-ho Jang²⁾

Sung-man Shin³⁾

¹⁾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²⁾Korea Center on Gambling Problems

³⁾Handong Global University

This study conducted a multiple mediation analysis using sub-factor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BPNs) as media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gambling and stress of gambling addicts to confirm that BPNs and stress, which affect gambling addiction, may be the result of problem gambling and to find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A total of 206 adults gambling addicts were screened by using CPGI.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d medi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yielded that problem gambling and sub-factors of BPN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tress when controlling for gender and debt. The sub-factors of BPN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gambling and stress.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BPNs and stress are not only the causes of gambling addiction but also the results from the harmful consequences of gambling addiction. The study supported the possibility of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Deficits of BPNs (of gambling users) → stress (of gambling users) → problem gambling → gambling addiction (of gambling addicts) → problem gambling → Deficits of BPNs (of gambling addicts) → stress (of gambling addicts)” among the variables and provided clinical implications for problem gambling counseling. Last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Gambling Addicts, Problem Gambling, Stress, Basic Psychological Needs, Multiple Mediation*